



도심 상공에 나타난 해무리 16일 제주시 삼도동 도심지 위로 해무리가 관측되고 있다. 해무리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굴절돼 나타나는 현상이다. 강희만기자

‘마을 바다 지킴이’ 해녀구조단 출범

제주해경서 16일 발단식 개최
관내 어촌계 14곳 176명 참여

제주 해양사고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해녀구조단’이 정식 출범했다. 앞서 제주해경서는 지난 2월 제주시 구좌읍 토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당시, 마을 해녀들이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서 실종자를 발견한 사건을 계기로 해양재난구조대 내 해녀구조단 신설을 추진(본보 3월 13일자 4면 보도)한 바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6일 해녀구조단 발단식을 개최하고 해양재난구조대 임원진 위촉식을 진행했다. 해녀구조단에는 제주시 관내 어촌계 56곳 중 하도, 고산, 귀덕, 구좌, 금능, 김녕, 비양도 등 14곳·176

명이 참여한다. 이로써 해양재난구조대 소속 인원은 총 749명으로 늘었다. 해녀구조단 가입에 대한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녀구조단은 앞으로 유사 시 해경이 구조 요청을 할 경우 실종자 수색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수중 정화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해양재난구조대법 제정에 따른 민간 해양구조세력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추진한 해녀구조단이 제주지역 해녀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면서 “향후 연안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천제연 ‘채구석 기적비’ 향토유산 됐다

도, 척박한 땅 일군 정신 등 담긴 중요 자료 인정
본보 보도 후 전문가 조사 토대로 심의 절차 밟아
“추후 예산 확보해 기적비 앞 울타리 정비 등 계획”

속보=서귀포시 중문동 천제연폭포 주차장 서측에 자리한 ‘통훈대부 대정군수 채구석 기적비’(1958년)가 제주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채구석 기적비’란 명칭으로 향토유산 지정을 공고했다.

‘채구석 기적비’는 가로 56.5cm, 높이 142cm, 폭 22cm에 이른다. 제주관공과 대정군수를 지낸 채구석(1850~1920)이 수로를 개척한 공적을 잊지 않기 위해 중문면 사람들이 세운 비석(2024년 10월 29일자 보도)이다. 채구석은 본인의 재산으로 천제연폭포 절벽을 따라 바위를 뚫고 물길을 열어 성천봉(베릿내오름) 아래까지 2~3리를 끌어당겨 16만5000㎡(5만여 평)의 메마른 땅을 기름진 논으로 바꿔 놓았다. 성천담회에서 서귀포시 지원을 받

아 천제연 제3폭포 인근에 건립한 ‘성천담 관개유적비’(2003년)에도 채구석의 공로가 다시금 새겨졌다. 채구석이 만들었던 물길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5년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란 이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됐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이번 기적비를 두고 “제주의 척박한 자연환경을 극복한 제주도민의 생활상과 농업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했다. ‘채구석 기적비’ 지정에 따라 제주도 향토유산은 총 46건(유형 39건, 무형 7건)으로 늘었다.

앞서 한라일보는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울타리로 가로막혀 접근이 어려운 ‘채구석 기적비’에 대한 관심을 주문했다. 당시 본보



천제연폭포 주차장 인근에 세워진 ‘채구석 기적비’.

는 2023년 제주도에서 ‘김광중 영세불망비’를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한 점을 들었다. 김광중은 1832년부터 1841년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황개천 일원에 약 1.1km의 수로를 냈던 인물로 그를 기리기 위해 화순담회 회원 등이 설치한 2기의 비석이 향토유산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에서는 ‘채구석 기적비’를 제주도 유산으

로 지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후 제주도는 전문가 조사를 추진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 열린 제주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향토유산 지정을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적비 앞에 놓여 있는 울타리 정비 등은 향후 예산을 확보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하루만에 절단사고 4건
의료진 부족으로 도와 전원도

제주지역에서 손·발가락 절단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16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하루에만 4건의 절단 사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오전 7시5분쯤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와 오전 8시47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에서 각각 70대 남성이 전동가위를 사용하다 손가락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어 오후 3시42분쯤 제주시 용강동에서 30대 여성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3명은 모두 응급처치는 받았으나, 수지접합 수술을 위해 육지부 병원으로 전원 안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제주에는 의료진 부족으로 수족지 접합 수술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현기자 hakch@ihalla.com

공직자 성 비위 사건 대응·예방 강화

도, 고충심의위원회 외부 전문가 추가 위촉
성고충상담창구는 메신저 등 활용 상시 가동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장 내 성희롱 등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성고충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것과 함께 고충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런 내용으로 3개 분야 11개 실천 과제가 담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제주도 성고충상담창구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의 방식으로 상시 가동한다. 현재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5월 중 외부 전문가를 보강해

전문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립 여부, 피해자 보호 조치, 재발 방지 관련 사항 등을 다룬다.

전문 기관과 연계한 피해자 심리·의료·법률 지원 추진도 강화한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규정’은 향후 조례로 제도화하는 안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력 예방 교육 4시간, 성인지 교육 1시간 등 법정 의무 교육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 교

육, 고위 공직자 대상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양성평등 도시·영향 감성문 작성 등 자기주도형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성인지 교육을 새롭게 도입해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어린이날 특별 키즈페스티벌

2025. 05. 05(월) 09:30~16:00

가족과 함께 어디? 고민 끝!

드넓은 잔디 광장과 숲 그늘 다양한 즐길거리.먹거리

어린이날 특별 이벤트

미트소스파스타, 새우튀김, 치킨, 떡볶이, 불고기, 탕수육, 새우볶음밥, 토마토 카프리제, 단호박구이, 조각케이크, 모듬 쿠키,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날 이벤트

어린이 기념품 증정! 방문객 대상 푸짐한 경품 럭키드로우!



모험의 세계로
피터팬과 함께



가족과 함께 추억을 담은
사랑해 포토존

2025. 04. 24 ~ 2025. 05. 11

봄꽃 고요다하게 피었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토종 생명의 숲, THE WE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초 개방

추억을 만드는 최고의 포토존

《행사 안내》



참꽃 최대 군락지

· 꽃 중의 꽃, 제주도화
· 300년 이상 수령 자람



이어도 전망대

· 섬들의비경, 그리고 이어도까지
· 커피, 제주향토음식준비